

A Description of the Public Library

公共圖書館에 대한 小考

李 澤 濬
國立圖書館 整理係長

머리말

圖書館의 社會的 存在意義는 個體로서의 生活者의 現實의 要求에서 出發하여 集團으로서의 生活共同體의 社會的 分業에 그 基礎를 두고 있다. 卽 圖書館은 어디까지나 市民社會의 內在的 要請으로서 存在하는 것이지 歷史的으로 生産되어 累積되는 文獻의 經濟的 利用의 第一義로 하는 것은 아니다. 發生的으로는 民衆의 生活要求와는 隔離되어 制度化되는지는 모르겠으나 近代 圖書館의 理念을 根源的으로 疎外된 人間性을 回復케 하는 것으로 確立되어야 한다. 前近代의인 圖書館에 있어서는 資料의 蒐集, 文獻의 價値의 認識, 書誌的 特性의 記述, 分類排列 保管 등 어디까지나 資料에 重點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圖書館員에 要求되는 것은 서어비스하는 對象인 人間의 理解 및 그 生活要求의 合理的 充足方法을 等閑한데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아직도 이러한 前近代의인 圖書館에 對한 感覺에서 脫皮하지 못한 것이 現狀인 것 같다. 日常 從事하고 있는 事務가 公共圖書館이 아니고 經驗이 微賤한 者가 標題를 適正하게 把握할 수 있을런지 自身疑問을 안고 생각나는 대로 若干 接觸을 해볼가 한다.

近代的 使命

公共圖書館의 使命에 對하여는 圖書館法에 明記한 바와 같이 圖書館資料를 蒐集, 整理, 保存하여 公衆의 利用에 供하고 그 相讓에 應하는 일을 目的으로 한 施設이라고 定義하여 그 範圍는 大端히 넓고 無定量이라고 생각될 程度라는 것을 規定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要求에 應하는 것이 社會教育이라고 생각되지만 一般 利用者側에서 불 境遇 法의 理想과 現實의 不一致를 이루고 있다고 느껴진다. 우리 나라의 法律이나 規則에서 그 趣旨, 內容은 諸外國에 比하여 거의 成文化되고 있으나, 그 運用하는 財政的 또는 人的面에서 缺與된 點을 너무나도 많이 發見할 수 있다. 人間은 單純한 學校教育만으로는 完成될 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없겠으나 特히 最近 人材의 要求를 하고 있는 現代社會에

서는 社會教育의 重要性을 저바릴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 圖書館이나 마을文庫, 農村文庫, 職場文庫 등의 役割을 重要視해야 되겠지만 圖書館의 使命이나 運營이 法에서 期待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社會를 發展의인 面으로 變化를 誘導하고 있는지, 現狀은 利用者層의 固定化, 卽 大學, 中·高生의 工夫房 提供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마저 抑制한다면 圖書館 利用者數는 激減할 것이며 오직 이러한 固定層에 對하여도 무엇인가 具體的인 方案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다. 이러한 原因은 主로 住宅, 環境 등 諸事情에서 어쩔수 없는 現實的인 모습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오로지 一般住民이 利用하려 하여도 恒時 滿員이라면 圖書館 設置의 目的에서도 設備不充分으로 放置해 둘 수만도 없을 것이다.

圖書館 設置數가 人口 또는 利用者 보다 絕對數가 不足하지 않은가, 一般住民이 더욱 利用할 수 있는 體制나 運營面에서 改善이 必要하지 않은가, 이러한 諸事項에 對하여 具體的인 企劃의 立案이 過去에 얼마나 있었는지, 關係者는 眞實한 立場에서 再考해야 할 段階라고 생각한다. 어떠한 發展的 變化가 없으면 公共圖書館의 使命도 半減될 憂慮가 있으며 司書의인 整理, 保存 등 內部業務만을 專念한다면 十年이 하루 같이 舊態依然하게 一步도 前進를 期待할 수 없을 것이므로 關係者의 奮發을 바랄 뿐이다.

圖書館의 沈滯

圖書館의 現狀에 對하여 筆者는 沈滯한 狀態라고 一端的으로 생각지 않는다. 그것은 希望과 確信을 가지고 創造的인 活動을 하고 있는 部分이 있으므로 이것을 十分 評價한 然後에 全體로서의 沈滯를 感知할 原因은 어디 있는가를 살펴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沈滯의 原因은 圖書館人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財政的인 貧困이 主된 原因은 아니다. 또한 文教部의 施策의 能動的인 아닌데 主된 原因이 있는 것만은 아니다. 主된 原因은, 圖書館의 貧困한 財政이나 文教部의 能動的인 아닌 施策이나 地方自治團體의 無理解라는 現狀을 包含하여 어떻게 一步 一步 前進할 것인가를 明白

하게 提示되어 있지 않은데 있다고 보는 것이다. 圖書館이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觀念的인 論議는 나쇼날 프렌(national plan)이라든가, 權力에 支配되지 않는다는가, 또는 大衆에게 서어비스하는 것이라고 看做되어 왔으나 나쇼날 프렌을 將來 實現하자면 現在 무엇이 必要한지 明確하지 않고, 權力에 支配되지 않기 爲하여는 支配하려는 權力과 어떻게 提携하며, 提携의 根據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의 提起가 되어 있지 않다. 다시 大衆에게 서어비스한다고 하지만 어떠한 大衆에게 어떻게 서어비스할 것인가의 點이 具體적으로 發掘되지 않고 있다. 結局 圖書館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明確하게 具體화하지 않고 每日 業務를 進行하는데 沈滯의 原因이 있다.

地域住民의 奉仕者로서의 公務員이 住民의 利益을 爲해야 된다는 것을 念頭에 두지 않고, 그저 주어진 일을 如何히 合理的으로 處理할 것인가의 點에만 눈을 配앗긴다면, 住民을 爲한 圖書館活動이나 農民을 爲한 農林行政 또는 災害의 豫防을 爲한 土木工事일 뿐인 것이다.

이와 같이 官僚的인 事實主義가 實은 中立主義의 假面을 쓰고 圖書館에 나타나 있지 않은지 모르겠다. “上下없이 平等한 立場에서 奉仕하는 것이 圖書館이다”라는 것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奉仕할 것인가는 問題가 아니고 보다 便利하고 正確을 期하는 點에 精進해야 된다고 본다.

이와 같이 消極的인 中立主義的인 圖書館活動이 沈滯의 原因이 되고 있다. 그러나 올바른 中立主義 立場은 中立을 堅持한 힘을 內部的인데 두어야 할 것이다. 即 圖書館人의 畛은 團結을 基盤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團結을 基礎로 地域計劃·全國計劃의 實現에 對하여 一步 一步 接近해야 하며, 財政問題도 그리고 其他問題도 解決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問題

前述한 바와 같이 圖書館이 社會教育機關으로서의 義務가 賦課되었으나, 그것을 如何히 合目的의으로 運營할 것인가는 그 地域의 事情에 依하여 若干의 差異가 있겠으며, 그리고 圖書館法 第15條에 規定된 事項을 遵守하는 方向으로 經營되고 있는지 疑心스럽다. 公共圖書館에 있어서 그 設置目的에 立脚하여 考慮할 問題라고 생각한다. 近來 모든 分野에서 綜合開發이라든가 綜合計劃 또는 廣域行政, 廣域經濟가 進行되고 있다. 이것이 直接 間接으로 住民生活에 깊은 關係를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福祉行政의 推進이기도 하다. 이에 對應하기 爲하여는 圖書館일지라도 例外로 判斷할 수는 없다.

公共圖書館이 學校教育의 補充의 任務를 勘當할 수도 있을 것이며, 全國의 마을文庫 35,000의 組織과 連繫는 더욱 바람직한 일이며, 아울러 圖書館 使用料를 徵收하고 있으나, 이것이 財政的 見地라고는 하지만, 이는 圖書館法의 根本精神으로 問題事項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資料의 館內利用의 一邊到를 止揚하여 館外利用을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한 圖書館 近代化의 捷徑일 것이다.

公共圖書館이 學校圖書館이나 各 特殊圖書館에서 目的을 達成할 수 없는 事項도 公共圖書館에서는 그것을 充足할 수 있는 綜合的 調查研究의 任을 擔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市民의 要求에 適應하여 參考奉仕를 爲한 圖書館職員의 人的 配置에도 配慮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職員이 처음부터 圖書館에서 奉職한다고 하면 그러한 綜合的인 參考奉仕業務가 充分하게 達成할 수 없을 것이다. 即 司書職員이 圖書館에 있어서 必須임에는 틀림이 없겠으나, 그러나 他部門을 全然 經驗하지 않은 司書를 가지고 適當히 處理하려는 좁은 視野를 가지고는 時時刻刻 時代가 變化하고 進歩해가는 現時點에서 利用者를 爲한 充分한 奉仕를 할 수 없을 것이다. 筆者는 이 點에 對하여 若干의 疑問을 가지고 있다. 故로 司書職 外에 一般職員(有能한 專門分野의 非司書)이 適當히 按配되었을 때 公共圖書館으로서의 運營이 一般的으로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한다. 오늘 날과 같이 利用者層에서 必要性이나 觀心을 느끼지 않는 處地에서 180度로 方向轉換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公共圖書館의 今後의 問題로서 考慮할 點은 公共圖書館이라 할지라도 豫算的 制約, 圖書館資料의 選擇에서 特別히 留意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利用者層이나 利用度 또는 個人으로는 購讀할 수 없는 點 등을 加味하여 어떤 基準을 設定하여 制度的인 運營이 必要할 것이다.

어떤 것을 必須圖書로 하여 資料로서 具備할 것인가는 그 基準設定의 면에서 容易한 일은 아니다.

이에 關聯되는 事項으로, 特別히 圖書館職員의 固定化된 職場이 一層 그와 같은 것을 助長하고 있거나 않은가 생각한다. 그러므로 藏書計劃에서 다음 事項을 固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1) 圖書館職員 以外에 第三者(有識者 또는 一般住民의 代表者 등의 計劃參加

(2) 調查研究에 必要한 資料에 對하여는 行政各部門 또는 各界의 意見を 聽取할 것

(3) 地方自治體의 發刊의 弘報誌를 活用할 것

(4) 地域圖書館間의 積極的인 連繫以上の 事項에 對하여는 一部地方에서 이미 實施하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나 一般的인 見解로 느낄 수 있는 事項들이다. 特히 公共圖書館의 性格上, 住民의 文化敎養 또는 調查研究機關으로서 對民奉仕를 爲하여는 過去의 慣例나 經驗도 無視할 수 없겠으나 이에 너무 置重하면 오히려 沈滯의 憂慮가 惹起될 수 있다.

圖書館協力的 前提

英國이나 덴마크에서는 公共圖書館이 1館 1館 孤立하고 있지 않다. 이런 現狀은 世界的으로 圖書館의 近代化過程에서의 하나의 趨勢이기도 하다. 어떠한 意味로서나 複數의 施設이 計劃적으로 結合하고 있다. 人口 5萬의 都市에 있어서 單 하나의 圖書館이 存在하고 있지는 않다. 그 都市의 中心圖書館의 周圍에는 全日制 또는 파트 타임의 分館이나 其他 service point가 있어 各己 하나의 體系로 組織化되어 있다. 卽 圖書館은 하나의 library system을 이루고 地域社會에 存在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全市에 水道管이 配管되어 있는 것과 같다. 물이 흐르는 루트와 같이 資料가 흐르는 루트도 全地域에 設定되어 있다.

水道와 圖書館의 差異點은 水道는 各戶에 수도꼭지를 가지고 있지만 圖書館의 경우는 걸어서 갈 수 있는 範圍의 場所에 施設이 있다. 卽 共同수도꼭지 같은 것이며, 그것이 水道의 경우는 수도꼭지가 있는 곳에 貯溜水가 되어 있지 않으나, 圖書館의 경우는 수도꼭지 卽 寄着할 수 있는 施設에 어느 程度의 冊이 停本하고 있다. 利用者가 寄着할 수 있는 施設에 가서, 그곳에 있는 冊으로 直席에서 自己要求를 滿足할 수 있으면 좋으나, 만약 그렇지 못하면 自己가 欲求하는 資料를 檢索하여 그것을 그 施設을 통하여 借出할 것을 要求한다. 이 要求는 中心圖書館에 傳達되고 中央圖書館에 依하여 要求者에 貸出된다.

이것은 수도꼭지를 틀으면 水道管을 通하여 물이 나오듯이 寄着할 수 있는 圖書館에 가서 要求하면 資料는 全市內의 system을 통하여 流出된다. 이와 같이 어느 곳에 있거나 住民은 全市內의 資料를 利用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library system이다. 水道꼭지 役을 하는 末端이 많이 存在하여 水道管에 該當하는 配本組織이 全市에 體制化되어 있는 것이 近代公共圖書館의 當然한 姿勢이다. 그리고 이러한 圖書館組織은 하나의 地域 하나의 都市領域을 超越하여 넓은 地域 卽 市·道 나라, 國際間으로 擴大되어 가는 것이다.

如何間 이러한 면에서 우리 나라의 公共圖書館活動에 對한 問題를 바로 잡을 必要가 있다고 믿는다. 훌륭한 하나의 圖書館建物を 지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機能적이고 便利한 圖書館組織에 依한 協力體制를 이룩할 것인가, 어느 것이 韓國社會의 現狀에 適合한가를

判斷할 때가 왔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圖書館의 協力體制의 前提로서 우리는 먼저 圖書館의 活動面에서 다듬어야 될 點이 수 없이 많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우리 나라는 現在의 時點에서 圖書館이 없는 地域이 너무나도 많다. 그러므로 公共圖書館이야말로 各館種에서 가장 伸長을 期待할 수 있다고 본다.

圖書館이 어느 限度를 上廻하면 住民의 利用要求가 急激하게 顯著化되어 圖書館의 複數配置와 專門職으로서의 司書의 配置가 不可避하게 된다. 圖書館→住民→自治團體→圖書館이라는 政策回路가 成立하면 公共圖書館은 急激히 伸長할 것이다. 이 때에 住民의 表面的인 要求의 有無는 關係가 없다.

現在 公共圖書館 活動의 盛況도 地域的으로 部分的인 데 不過하다. 그리고 現在 圖書館利用을 量的으로 擴大할 時期라고 推測이 되나 欲心을 낸다면 資料의 選擇 및 其他 質的인 면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發展의 테타는 利用率이나 貸出冊數의 增加라는 數字의 形態로 나타나는 일이 많지만 現在는 圖書館으로 하여금 住民(社會)에 向한 積極的인 活動을 展開할 段階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公共圖書館은 一般的으로 住民의 生活圈에 깊숙히 파고 들지 못한 것이 現實이다. 特히 勤勞者層의 利用者가 바라고 있는 것은 休日과 夜間일 것이다. 어느 利用者의 圖書館에 對한 希望事項으로 提示하는 바에 依하면, “……夜間開館에 消極的인 理由는 圖書館員이 아침 일찍 집을 나와서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普通 짜리리멘 生活를 하고 싶다는 外에 아무 것도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現在 圖書館員에게 夜間勤務를 命할 수는 없을 것 같다. (中略) 公共圖書館이라는 것은 반드시 夜間에 開館하는 것을 大原則으로 確立할 것을 바란다”라고 素朴하게 말한데 對하여 어떻게 答할 것인가, 여기에서 筆者는 이에 對한 答으로서 첫째로 館外貸出制度를 確立하는 方法과 둘째로 英國과 같이 全日制 및 파트 타임制의 圖書館制度를 考慮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理論的으로 中小 公共圖書館의 思想이 이러한 理由로 確立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第一線 圖書館과 地域의 中央館 卽 支援圖書館의 役割이 制度的으로 必要하다. 그러나 問題는 먼저도 指摘한바와 같이 우리 나라는 全體的으로 보아 公共圖書館이 質이나 絕對數도 아직 너무나도 뒤떨어져 있는데 있다. 公共圖書館이 單純하게 無料貸本所로 始終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小事業體를 包含한 住民의 調查研究機關까지 引受해야하는 分水嶺에 서있는 것이 우리 나라의 公共圖書館의 現狀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企劃하고 努力하는 것은 圖書館側이지만 社會의 構成要素로서 認知해 주는 것은 어

더까지나 社會自身이다.

個人的 個性이 있듯이 公共圖書館에도 個性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그대로 地域의 個性을 反映하는 것으로 藏書도 獨自의 性格을 갖추어야 될 줄로 안다.

公共圖書館은 그 個性의 發揮라는 면에서나 專門圖書館的 機能의 開發이라는 點에서도 그 擔當地域 自體에 關한 모든 "鄉土資料"를 中心으로 하여 地域內에서 刊行되는 全資料를 蒐集·保存할 責務가 있다. 이러한 點에서 學校·大學·諸團體의 圖書館도 同一 하겠으나 前記의 資料에 關해서는 消耗品化하지 말고 永久保存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맺는 말

公共圖書館의 發展은 大衆과 더불어 비로소 이룩할 수 있다. 即 大衆과 어떻게 結合할 것이며 讀者의 組織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의 問題이다. 住民의 利益을 守護하고 要求에 對應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이것을 아무리 圖書館의 칙칙한 房에서 생각한다고 解決할 수는 없다. 그러나 大衆은 一步밖에 나가면 얼마든지 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要求하고 있는 것일까, 大衆團體와의 結合을 어떻게 推進할 것인가 館報를 어떻게 利用시킬까, 어떠한 方法으로 資料利用을 勸奨할 것인가 등 써나가면 限이 없다. 現在

沈滯되어 있지 않은 圖書館에서는 새로운 方法을 創造하면서 一步一步 大衆團體와의 連繫가 인퍼말(informal) 하지만 進行되고 있다. 한사람 한사람의 利用者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大衆속에 들어가 그 活動을 援助해가는 奉仕를 推進하고 있다. 即 圖書出納係에서 閱覽係에 그리고 다시 奉仕係에로의 말 뿐이 아니라 內容도 달리한 새로운 方向이 誕生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沈滯와는 別途로 큰 壁에 부딪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돈이 없다. 그리고 사람이 없다 등이다. 역시 이것도 圖書館員의 團結을 基礎로 大衆의 協力을 얻어 그 壁을 突破할 方法 以外에는 없을 것이다.

圖書館의 破滅이나 發展은 結局 最後의 關鍵은 大衆에 依하여 左右된다고 믿는 바이다. 그리고 "알 權利의 均等性"이라는 現代社會의 正義는 公共圖書館에 高度의 文獻을 保持함으로써 지켜질 수 있다. 自治團體가 廣範圍한 學術文獻을 具備할 能力이 없다고 하더라도 自治團體에서 居住하고 있는 누군가가 文獻에 對한 要求가 있을 때, 圖書館員은 다른 圖書館을 調査하여 그 要求를 滿足시켜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公共圖書館 司書도 高度의 學術文獻을 取扱할 수 있도록 養成되어야 되겠다. 여기에서 우리 나라의 初級司書, 中級司書, 高級司書 및 司書의 再練修 등 教育制度의 再檢討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삶의 態도와 戰略

우리들은 過去 10餘年 동안 物的인 뒷받침뿐 아니라 人的 資源의 極甚한 不足속에서도 한편으로는 內的 組織을 통한 奉仕構造體制의 確立으로부터 現代의 意味의 圖書館을 築고 發展途上國이 直面하고 있는 現實克服의 捷徑을 認識시키기 위해,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權益擁護와 社會의인 認識을 促求하기 위해 不斷한 努力을 競走해 왔다.

그러나 圖書館을 組織形成過程에서 全人的 奉仕展開過程으로 이끌어 가야 할 重大한 轉換期에 處해 있는 요즘, 一線 司書들이나 圖書館學徒들이 自身の 職業觀과 學에 대한 懷疑感으로 인하여 意慾이 喪失되고 所屬感에 대한 態度마저도 否定的인 方向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를 자주 들어 왔다. 이러한 印象은 協會에 國庫補助金이 끊겼고 中心街에 있는 國立中央圖書館이 移轉된다는 話題가 나올 때마다 지어지는 表情과 態度에서도 역력히 엿볼 수 있었다. 이는 圖書館의 價値性에 대한 社會的인 認識不足과 우리들의 努力에 대한 代價가 너무 적다는 데서 나온 慾求不滿에서 取해진 態度요 一種의 社會에 대한 挑戰의 表徵이었으니라. 그렇다고 우리들이 지닌 使命을 外面한채 現實에 대한 不滿의 姿勢로 언제까지나 批判의이고 否定的인 態度意識 속에서 남이 고쳐주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일이 아닌

가. 人間이 삶에 있어 金慾을 잃는다는 것은 가장 적게 잃는 것이지만 意慾을 잃는다는 것은 自己 全部를 잃는 것과 마찬가지로 地位와 條件의 改善이란 意志와 意慾의 結晶體인 우리들 各者의 自力更生의 手段에 의해 爭取하여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人間이 心理的으로 自由스러울려면 무엇보다 1) 自身을 肯定的으로 보고, 2) 他人과 共同意識을 가지며, 3) 많은 情報를 所有하여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말은 특히 自繩自縛하려는 우리들 모두의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야 할 말이라 생각된다. 우리는 결코 現實을 外面한 채 自身만을 위해 살 수만은 없다. 비록 人間이 오늘날 메카니즘 속에 사로잡히면서 大衆으로서의 否定的인 側面과 公衆으로서의 肯定的인 側面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二重構造의 性格의 所有者로 轉落하고 이로 인해 消極的이고 被動的인 行動을 유발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歷史的인 狀況下에서건 環境의 改造者라는 立場에서 受動的, 消極的이기 보다 能動的, 積極的인 存在라는 것은 결코 버릴 수 없을 것이다. 能動的인 奉仕라는 圖書館의 目的指向인 方向으로부터 다른, 현으로는 關係要路와의 相互協力關係의 強化에 의해 人間關係를 形成시켜 低壓에 흐르고 있는 不滿의 要素의 꾸준한 抑制로부터 目的達成을 위해 정진해 간다면 우리는 결코 슬프지 않은 삶을 것이다. (彪)

KLA 코너